

웅진군, 병원선 ‘건강웅진호’

타고 섬 방방곡곡 찾아가

웅진군(군수 문경복)은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선(건강웅진호)의 보건교육실을 활용한 ‘섬 방방곡곡 누비는 보건교육’을 지난 3일 덕적면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했다고 밝혔다.

“섬 방방곡곡 누비는 보건교육”은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보건교육 서비스로, 병원선 운항과 연계해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보건소 전문인력은 덕적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양관리, 절주 및 금연 교육, 치매 예방, 정신건강, 구강건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주민 눈높이에 맞춘 시청각 자료와 인쇄물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도 보건교육은 병원선 내 보건교육실은 물론, 지역 내 경로당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서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해련 보건소장은 “병원선(건강웅진호)를 활용한 이번 보건교육은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건교육을 통해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농번기 불편 없도록

임대 농기계 사전 정비 박차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점검과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화군 농기계은행은 소규모 농가의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영농에 필수적인 각종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연중 임대하고 있다고 있다.

임대를 위해 구비한 농기계는 126기종 973대에 달하며, 매년 많은 농업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농업 현장의 든든한 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영농철 임대 수요가 많은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잔가지 파쇄기 등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엔진 및 유압계통 점검 ▲소모품 교체 ▲안전장치 작동 여부 확인 ▲기계 세척 및 보관 상태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임대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농기계은행 관계자는 “농번기에는 작은 고장도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꼼꼼한 사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 국토교통부 최종승인

원·신도심 균형발전 및 글로벌 스마트도시 조성 본격 추진

군·구 특성 반영한 41개 이행과제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원·신도심 균형발전과 글로벌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25년 12월 30일 최종 승인을 받아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 1월 30일 용역 수행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도시계획의 단계별 추진 방향과 기관·부서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

됐다. 계획의 주요 목표는 ▲균형발전 스마트도시 ▲모두가 함께하는 메가시티 ▲글로벌 스마트도시 ▲데이터 기반 혁신도시 등 4개 분야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도시’ 등 8대 추진전략과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보급확산 서비스’ 등 41개 스마트도시 이행과제를 담았다. 이를 통해 군·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인천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 설문조사(3회), 부서 인터뷰(3회), 전문가 자문회의(3회), 공무원 워크숍(1회), 시민 공청회(1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적극 반영했다.

이월 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형 스마트도시는 기술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 중심, 시민 체감 중심의 도시”라며, “ICT·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이 해양 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생태계 유지 등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인천시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제도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부정수급 사례 20건을 적발했으며, 환수대상 금액은 총 1,504만 8천 원이다.

심하린 기자

유정복 시장, 계양구 연두방문... 시·구 협력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3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계양구를 방문해 구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2026년 연두방문’ 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 일정은 계양구 주요 업무보고, 구의회 및 기자실 방문, 주민과 함께하는 ‘생생톡톡 애인(愛仁)소통’ 행사 등으로 진행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계양구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집중 논의됐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효성2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매매계약 특약사항 유예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 민간처리에 따른 지원 현실화 등을 다뤘다. 시와 구는 각 사업의 추진 여건을 공유하고,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유정복 시장은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시와 구가 협력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기자실을 방문해 지역 언론인들과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이후 구청 대강당으로 이동해 주민 450여 명이 참석한 ‘생생톡톡 애인(愛仁)소통’ 행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시정 정책의 비전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의 사항에 답하며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유정복 시장의 이번 방문과 적극적인 협력 의지에 화답하며, “인천의 미래 비전은 곧 계양구의 발전과도 맞닿아 있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안 하나하나를 차분하고 책임 있게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남동구, 설 명절 대비 시장 계량기 검사

남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4~13일까지 시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의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설 명절 연휴 전 남동구 관내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는 계량기 훼손 여부, 사용 오차 및 영점 조정 상태, 검정 및 정기 검사 합격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한다.

특히, 명절 연휴 중 불법 계량기 사용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소래포구 어시장, 모래내시장, 구월시장에 설치된 표준계량대(5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구매할 물품의 무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절 연휴 기간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명절 연휴 기간 불법 계량기 사용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장 내에 있는 표준계량대 또한 많은 이용 바란다”라고 전했다.

심하린 기자

서구, 행정체제 개편 검단지역 주민소통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3일 다가오는 2026년 7월 ‘검단구’ 시대를 여는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검단지역 주민소통단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단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된 소통단 위원들과 검단구 출범에 따른 ▲임시청사 설치 현황 ▲검단구 출범 사전 조직사항 ▲분야별 추진사항 등 검단구 출범 진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주민 위원들의 의

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주민소통단 위원들은 검단구 출범에 따른 지역 행정의 변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실질적인 주민 불편 해소와 출범에 따른 재정적 우려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구는 “유례없는 행정체제 개편이 행정공백 없이 무사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모두가 공감하는 검단구를 실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Goheung Spaceship Terminal

제16회

고흥

무주항공축제

2026.5.2.①—5.5.④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